

강진 인근 누뻐던 용의자 추가 범행 가능성 수사해야

2000년·2001년 6월에도 강진 하포길 초동생 2명 의문의 실종 강진 인근 해남·장흥 등서만 수십여명 달해...연관성 조사 필요 전남 5년간 실종 아동·청소년 33명 등 장기 미제 사건 수두룩

강진 여고생 이모(16·고1)양 실종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50대 남성의 치밀한 행적이 속속 드러나면서 추가 범행 가능성도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숨진 여고생이 친구에게 보낸 "아빠 친구와 만나 해남으로 간다"는 SNS 메시지 외에 범죄를 입증할 만한 단서가 단 한건도 발견되지 않은 정도로 범행 과정을 사실상 완벽하게 은폐했기 때문이다. SNS가 없었더라면 자칫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광주일보 6월 22일자 6면>

특히 2000년과 2001년 6월 강진에서 1년 사이 여자 초동생 2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과 연계한 '아동·여성 실종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해남·장흥 등 인접 지역에서도 최근 실종된 여성만 수십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전남경찰청과 강진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전남도내 22개 시·군에서 실종된 성인여성은 총 155명이다. 강진에서는 2016년 1명, 2017년 1명 등 2명이 실종 신고된 상태다. 같은 기간 강진

인근 해남에선 7명, 영암 15명, 장흥 11명 등이 실종됐다. 지난 3년간 전남지역 실종 여성 중 22.5%에 이르는 35명이 강진과 인근 해남, 영암, 장흥 등 4개 군에서 사라진 것이다. 좀 더 범위를 좁혀 전남내에서 2000년대 들어 범인을 잡지 못한 미제 살인사건도 총 7건에 이른다. 강진 초동생 실종 사건 이후 전남에서 최근 5년간 실종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33명이다. 강진에서 지난 2000년과 2001년 감쪽같이 사라진 여자 초동생 실종 사건은 전국민적 관심을 모았으나 미제로 남았다. 지난 2000년 6월 15일 오후 강진 동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성주(당시 8세)양은 수업을 마치고 학교 후문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오빠를 기다리던 중 실종됐다. 성주양이 실종된 지 1년여 만인 2001년 6월

1일에도 강진 중앙초등학교 1학년이 재학 중이던 김하은(당시 6세)양이 하교 도중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두 사건 모두 우연히도 이번 여고생 실종 사건과 비슷한 시기인 6월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연관성 여부 등을 되짚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2000년 무렵 30대 초반이었던 강진 여고생 사망 사건의 용의자인 김모(51)씨가 아이들이 실종된 곳에서 불과 10여km 떨어진 강진 도암면에 거주한다. 당시 트럭을 몰고 강진 구석구석을 누비며 개를 사고 파는 '개장수'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관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 숨진 김씨를 잘 아는 한 주민은 "김씨가 최근까지 도암면에서 살다가 2014년께 보신탕집을 차리면서 강진읍으로 이사를 갔

다"며 "(김씨는) 1980년대 초반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석유배달기와 덩크트럭 운전, 개장수 등 운전을 업으로 살아 누구보다 강진 곳곳의 지리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주민은 또 "외모가 준수한 편인 김씨는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여자관계는 좀 복잡했다"며 "주변 지인들의 아내와 문제가 생겨 다투는 일도 종종 있었다"고 주장했다. 탐민철 전남경찰청 실종전담팀장은 "실종전담반에서는 실종자가 1년 이상 연락이 안 될 경우 모든 범죄의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한다"면서 "이번 강진 여고생 사건의 경우 인근 장기실종사건 등과 연관성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필로폰 3억원대 밀수입 불법체류 자국민에 판매 태국인 30명 검거

광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필로폰을 밀수입해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등 태국인 21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태국인 근로자 9명을 구속했다. 이들 대부분은 불법 체류자들이다.

A씨 등 밀수입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태국 현지 브로커로부터 필로폰 63g(3억 1500만원 상당)을 매입, 국내로 들여와 0.02g당 1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식품 포장지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 택배를 통해 국내로 들여왔다. 이들은 밀수, 공금, 판매로 역할을 나눠 전국 도박장, 인력소개소에서 같은 국적의 불법체류 근로자를 상대로 필로폰을 판매했다. 마약 투자자들은 불법 체류자로 정상적인 취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상황을 이겨내려 평균 3~4회 마약을 투약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마약 조직을 통해 전국적으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 유통 경로를 역추적해 밀매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노광일 광주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외국인 조직범죄를 조기 포착하고 강력히 대처해 마약 청정 국가라는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외국인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강진 야산 발견 시신 실종 여고생으로 확인

용의자 차 낮에서 유전자 검출도

강진 매봉산에서 발견된 시신이 지난 16일 실종된 이모(16·고1)양으로 최종 확인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광주과학수사연구소)으로부터 시신의 유전자(DNA) 감정 결과 실종된 이양과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양 아빠 친구이자 용의자로, 이양 실종 다음날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김모(51)씨가 이양 실종 당일 귀가한

뒤 승용차 트렁크에서 자신의 차고지로 옮겨놓은 낮에서도 이양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낮의 날과 손잡이 사이 자루에서 A양 유전자가 검출됐으며, 혈흔이나 김씨의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1차 부검에서 사인을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정밀 부검을 통해 2주일 내에 정확한 사인을 밝혀낼 예정이다. 경찰은 이양이 김씨에게 속거나 협박에 의해 산으로 이동했을 가능성과 김씨가 숨진 A양을 직접 산 너머까지 이동시켰을 가능성, 공범이 있을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 놓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마철 토사 유출 막아라” 광주 북구청 직원들이 26일 신안동 광주지방기상청 인근 경사지에서 장마철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방수포를 설치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세월호 관제 소홀 진도VTS 센터장 정직 적법

광주고법 “인명피해 책임 커”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 업무를 소홀히 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에게 내리던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2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참사 당시 진도 VTS 센터장이었던 김모(49)씨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징계를 취소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세월호의 구체적인 상황 전달이 필요했지만, 상황대응 매뉴얼을 위반해 구조를 담당하는 경비함정 등에 상황을 전파하지 않았다"며 "정확한 정보 전달이나 구조 당국 사이 체계적인 공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의 원인이 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에 비춰볼 때 그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는 관제 업무를 총괄하는 VTS 센터장으로 세월호 사고까지 3년이나 소속 관제사들의 근무 소홀에 대한 감독 의무도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참사 이후 CCTV 영상을 삭제하도록 한 것은 자신에게 미칠 수 있는 처벌을 피하고 VTS 근무자들의 변칙 근무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이로 인해 사고 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해경 전체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1·2심은 정직은 지나치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정직 처분은 적법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세 남매 방화치사’ 20대 엄마 무기징역 구형

다음달 13일 선고 공판

검찰이 고의로 불을 내 세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오후 이 법원 형사11부(송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현주건조물방화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여·2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화재 현장 정밀 감식 결과 등 여러 증거에 비추면 정씨가 고의로 주거지에 불을 내 자녀를 숨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무거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2시 26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모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4세·2세 아들, 15개월 딸 등 세 남매가 자고 있던 작은방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초 정씨가 실수로 불을 냈다며 '실화'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정밀 감식,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방화'로 결론 내렸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소라넷’ 운영자 귀국 최고량

○...한때 국내 최대 음란 포털사이트로 유명세를 떨쳤던 '소라넷'의 운영자가 외국 도피생활 중 자진 귀국해 최고량. ○...2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6년간 외국에 서버를 두고 남편 등과 함께 소라넷을 운영한 A(여·45)씨는 뉴질랜드로 도피했으나 외교부의 여론 무효화 조치에 따라 지난 18일 인천공항으로 자진 귀국했다는 것. ○...지난 1999년 '소라의 가이드'라는 이름으로 문을 소라넷은 한때 회원이 100만명을 넘을 정도로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음란물 사이트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소라넷 회원들이 불법 촬영한 리벤지 포르노, 집단 성관계 등 불법 음란물을 공유하는 것을 방조했다"고 설명. <연합뉴스>

상가 원룸 매매 [신축 전문]

■ 월곡시장 2분 (고려인마을)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 1층 ★상가 2칸★

2층~3층 (원룸 10개) (투룸 2개)

4층 (주택) ★공원앞 전망최고★

보 9천 월 600만 (용3억)

▶매가 9억4천만

①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16개) 월세 600만 ▶ 매가 8억8천

③ 월곡동시장 2분 (4층 원룸상가) (원룸12개, 투룸2개) 총 14개 (월수익 550만) ▶ 매가 8억3천만

② 월곡동 (1층 상가1칸) 2층~4층(원룸12개) (투룸3개) (합16개) 월세 590만 ▶ 매가 8억 7천만

④ 전대정문2분 (원룸18개, 안집1개) 보7천만 월700만 ▶ 매가 12억8천만(용 3억5천만 가능)

010-7384-7800 010-6670-9800

상가매매 (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 (12층중 6층 상가) 롯데마트 앞 19평 (모든업종가능) 보5백 월 40만

▶시세 1억3천

매가 6천300만

① 상무지구 중심구역 상가 (12층중 6층) 23평 (보5백 월33만) ▶ 매가 7천5백만

② 북구 용봉동(상가빌딩) 상대분 (코너) 토 65평 건 164평 (4층 안집있음) 보 1억6천 월 430만 ▶ 매가 11억2천만

③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초역세권 토지) 송탄역 1분(코너) (건축허가완료) 개발시 순수익 10억 ▶ 매매가 9억

④ 평택 독곡동 전원주택 분양(투자적합) 송탄역, 진위역 5분 (고덕신도시 7분!!) 1필지 약 200평 ▶ 매가 2억4천만(용1억2천)

⑤ 원룸 토지매매 (광산구신정동) 코너 총 16개 (상가개) ▶ 매매가 3억5천만

010-7384-7800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상가빌딩(추천)

1) 서구 쌍촌동 (3층 상가주택) 토 90평 건 107평 ▶ 감평가 6억 → 최저가 4억2천

2) 광산구 소촌동 (원룸빌딩) 토 80평 건 144평 ▶ 감평가 3억5천 → 최저가 2억4천8백

3) 남구 백운동 (3층 빌라) 토 65평 건 145평 (코너 위치) ▶ 감평가 3억6천 → 최저가 2억2천

4) 북구 문흥동 (빌라) 토 57평 건 101평 ▶ 감평가 3억6천 → 최저가 2억

토지 기타 추천

1) 서구 매월동 348평 유통단지 입구 교차로 코너 6차로대로 접 ▶ 시세 18억 → 최저가 6억6천

2) 동구 지산동 (토지) 176평 ▶ 감평가 1억9백 → 최저가 1억9백

3) 남구 월산동 (100평) ▶ 감평가 1억 2천 → 최저가 7천9백

4) 서구 금호동 (1층 상가) (137평) ▶ 감평가 13억 → 최저가 9억4천

5) 수원지구 (1층상가) 50평 ▶ 감평가 9억3천 → 최저가 5억2천

6) 북구 용봉동 (12층중 7층) 100평 ▶ 감평가 6억7천 → 최저가 2억4천

★ 일반 부동산토지매매 ★

원룸 토지매매 (광산구 신정동) 코너 총 16개(상가 1개) ▶ 매매가 3억5천만

근린상가/빌라/숙박시설

① 수원지구 (5층중 2층상가) 감평가 3억천 → 최저가 3억천

② 북구 용봉동 (2층 중 2층 상가) 감평가 8억천 → 최저가 2억9천8백

③ 동구 남동 (상가주택) 감평가 1억천 → 최저가 1억천

④ 남구 봉선동 (4층 중 2층 상가) 감평가 18억 → 최저가 12억6천

⑤ 남구 주월동(빌라) 토 108평 건 88평 감평가 14억8천 → 최저가 10억

A.P.T, 주택

① 상무 비둘기마을(주공 아파트) (25평) 감평가 2억천 → 최저가 1억4천

② 서구 용봉동 중흥아파트(20평) 시세 1억2천 → 최저가 1억2천

③ 광산구 오성동 공영토 500평 건 500평 감평가 1억 → 최저가 7억 9천

④ 광산구 월산동 공영토 2000평 건 2500평 감평가 89억 → 최저가 4억

⑤ 서구 용봉동 대주마트 (23평) 시세 1억 8천 → 감평가 1억

공장/기타

① 북구 일곡동 청솔아파트 (19평) 시세 1억 → 최저가 7천2백

② 광산구 신정동 부영아파트(34평) 시세 2억 1천 → 최저가 1억4천

③ 광산구 오성동 공영토 500평 건 500평 감평가 1억 → 최저가 7억 9천

④ 광산구 월산동 공영토 2000평 건 2500평 감평가 89억 → 최저가 4억

⑤ 서구 용봉동 대주마트 (23평) 시세 1억 8천 → 감평가 1억

010-7384-7800 010-6670-9800